

2020
교원우수수기
"우수 수기 등 자료집"



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KAU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I. KAU 우수 수업 수기 개요	1
--------------------------	---

II. 2020 우수 강좌 수기 사례	2
----------------------------	---

III. 2020 학습공모전 우수작	3
---------------------------	---

I . KAU 우수 수업 후기

1. 개요

- 2020학년도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 및 포상하고, 해당 자료들을 수업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본교 전체 교원들의 강의 역량 향상 및 수업 향상 도모

2. 대 상

- 2020 학습공모전(“원격 우수 강좌 에세이”) 당선작 대상 강좌 교원

3. 2020학년도 우수 사례 대상자

No	제목	교수명	비고
1	젊은 세대를 위한 쉬운 『논어』 읽기 수업 후기	조정은 교수 (인문자연학부)	
2	“한국고전문학산책” 온라인 운영	송미경 교수 (인문자연학부)	



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KAU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Ⅱ . 2020학년도 우수 사례

젊은 세대를 위한 쉬운 『논어』 읽기

인문자연학부 조정은

[강의 개요]

이 수업은 『논어』 강독 수업입니다. 2020년 1학기에 처음 개설되었고, 일 년에 한 학기 운영됩니다. 강의실 기반 수업으로 개발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강의는 전체 50명이 수강하였고, 3학년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학년 수강생 수는 거의 같았습니다.(1학년 15명, 2학년 14명, 3학년 6명, 4학년 15명) 수업활동은 <녹화영상 학습, 출석과제 제출, 실시간소통 참여, 보고서 제출>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특정 주제별로 『논어』의 장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자와 『논어』에 나오는 주요 제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들을 위주로 읽었고, 이어서 도(道), 인(仁), 충(忠), 학(學), 중용(中庸), 수기(修己) 등 공자사상의 주요 개념에 관한 장들을 읽었습니다. 수업에서 읽는 순서대로 『논어』의 장들을 재배치해 원문과 번역문을 실은 편집교재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번역문을 대상으로 강독했고, 중요한 문장이거나 널리 알려진 문장인 경우 한문도 함께 읽었습니다.

고전 강독만 하면 자칫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칼럼 등 오늘날 맥락에서 『논어』를 해석한 글이나 직접 『논어』를 언급하지는 않아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처럼 『논어』에 관한 현대의 글을 읽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처음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공계 학생 비율이 높고,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도 이공계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고전 강독이 이공계 학생에게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쉽고 재미있었으며 실제 삶의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강의평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 학생의 의견만 확인할 수 있어서 강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강의를 계획하며 설정한 목표에 어느 정도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수업활동]

◎ 녹화영상 학습

학생들은 매주 1시간30분가량 녹화한 영상을 학습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교수학습센터에서 강의 녹화를 지원해 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PPT에 직접 필기할 수 있는 1인 스튜디오에서 녹화했는데, 음질과 화질이 만족스러웠다는 학생들 평가가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동영상도 삽입해야 했는데 이 역시 교수학습센터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기술적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덕에 강의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 출석과제 제출

출석과제는 온라인 강의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출석 점검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부여한 것인데,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제 중 한, 두 개를 선정해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A4 1/3장 정도로 답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답안은 강의 내용에만 근거해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출석과제에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 확인될 경우 Q&A 게시판과 실시간소통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온라인강의라는 소통이 제한된 환경에서 출석과제를 통해 피드백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출석과제는 평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석과제를 3~4 등급으로 분류해 매주 기록했는데, 출석과제의 질적 수준은 기말고사 결과와 상당히 높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출석과제에 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보조자료로서 유용했으며, 향후 출석과제에 관한 질적 평가를 포함시킨다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시간 소통 참여

처음에는 실시간소통을 실시하지 못했고, 학교의 권고사항이 공지된 후 9주차부터 실시간소통을 실시했습니다. 약 40분에 걸쳐 출석과제에 대한 리뷰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질 수 있어서 온라인 녹화강의인 경우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수업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강의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플립러닝 형식으로 운영하며 실시간소통을 강의실에서 진행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소통은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여율도 20명 내외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실시간소통을 첫 주부터 진행한 2020년 2학기 다른 수업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소통 영상을 LMS에 올렸습니다. 녹화영상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 형태인 경우, 실시간소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더 나올지, 자발적 효과가 더 나올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실시간소통에 멘티미터 등 학생 참여를 진작시키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 흥미도를 높임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A4 약 세 장으로 12주차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소개하는 글로서 수업 내용과 이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담아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글에 대한 이해가 뚜렷할 때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읽은 『논어』를 본인의 시각에서 음미하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 기타 활동

질문을 출석과제를 작성할 때 함께 서술하거나 Q&A 게시판 혹은 메일을 활용해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시간소통을 하지 못해서 학생 질문에 대한 답과 출석과제에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을 작성해 Q&A 게시판에 올려 피드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실시간소통을 하게 됐을 때도 Q&A 게시판 용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실시간소통과 병행하여 같은 용도로 계속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LMS에 동영상 올릴 수 있었던 2020년 2학기 다른 수업에서는 실시간소통 시간에 답을 하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평가방법]

★ 평가 비중

처음 강의실 기반으로 계획했을 때는 중간 40%, 기말40%, 과제 10%, 출석10%로 평가항목과 비중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기말60%, 보고서 30%, 출석10%로 변경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평가 비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학기에 이 강좌를 다시 운영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기말50%, 출석20%, 과제20%, 참여도10%로 설정했습니다.

여전히 기말 비중이 높는데, 그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제가 맡은 수업의 평가자료에 근거할 때 나머지 항목과 기말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좋은 평가 방식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말의 비중을 높게 잡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중간고사와 수시평가를 추가해 기말에 편중된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 출석과제

2020년 1학기는 출석과제 제출여부로만 출석을 평가했으나 2021년 1학기는 여기에 더해 출석과제의 질적 수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학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인 만큼 추후 비중을 더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보고서

보고서는 수업내용에 근거해 본인의 시각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심화와 응용보다는 정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학생들 사이 큰 변별이 없었기 때문에 2021년 1학기에는 처음에 잡은 30%보다 비중을 낮추고 참여도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간소통 참여와 질문 등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북돋고자 합니다.

★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단답형 두 문항(각 문항당 세부질문 네 개), 서술형 다섯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단답형과 달리 서술형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답안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이 내용 포함 유무에 따라 일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답안을 점수 순으로 배열한 후, 서술의 구체성과 글의 짜임새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배열해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다른 평가 항목들도 대체로 고르게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향후 개선사항]

♠ 학생 참여 진작 및 활성화

비록 줌을 활용해 실시간소통시간을 가졌으나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자발적 참여 형식을 취하니 참여 인원이 적었지만,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향후 수업 개선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고, 미리 퀴즈나 의견조사 항목들을 정리해 멘티미터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면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켜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카메라를 켜면 현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같아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려 합니다.

♠ 외국인 학생 지원

외국학생이 다섯 명 수강했는데, 일부는 한국어 실력이 매우 낮아서 기본적 글쓰기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출석과제를 수정해 주었으나 나중에는 학생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서 수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해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되어 학생에게 거의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기반일 때도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온라인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될 때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외국학생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면, 일정 수준 이상 토픽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생은 필수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게 하거나, 글쓰기 등을 도와 줄 수업 도우미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통해 배운 점]

- ▶ 매주 학생들에게 짧은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자기 이해를 점검하고, 교수자에게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단, 수업형태와 다른 학습활동을 고려하여 과제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 실시간소통에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 강의운영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수록 강의의 질이 좋아진다.
- ▶ 온라인 강의라서 플립러닝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됐는데, 이러한 형식은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강의실 기반으로 돌아가더라도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한 가운데 플립러닝 형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KAU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한국고전문학산책” 온라인 강의 운영

인문자연학부 송미경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산책”]

‘한국고전문학산책’은 ‘문학과 예술’ 분야의 교양 교과목으로, 2014년 2학기에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강사 신분으로 이 과목을 맡았을 당시 제가 전해 들은 관련 비화(祕話) 또는 비화(悲話)는 이러했습니다. 전부터 이 과목의 개설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폐강의 수순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에 따라 ‘…개론’, ‘…이해’ 식의 기존 과목명을 지금의 ‘…산책’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해 9월, 덕분에 ‘고전문학산책’(2016년 1학기 ‘한국고전문학산책’으로 과목명 변경)은 45명의 수강생과 함께 과학관 101호에서 무사히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떠했는가? 낯익은 듯 낯설고 뻘한 듯 어려운 그 무엇이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고전문학과 만나보자. 함께 천천히 걸으며 ‘지금, 여기’의 이야기도 나눠보자. 이 강의의 수업 대부분은 작품 전문 강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한문으로 된 작품은 현대어역본으로 읽을 예정이니 그리 긴장하지 않아도 좋겠다.”

강의계획서 중 ‘과목 개요’의 일부입니다. 항공대의 경우 항공우주특성화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대학생에게 우리 고전문학은 그저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대상이 아닙니다. 전(全) 생애를 통틀어 가장 치열하게 우리 고전문학과 만난다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바로 앞서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이었던 대입의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했기에 ‘고전문학’이라고 하

면 서양의 고전을, ‘한국문학’이라고 하면 한국의 현대문학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실제로 학기 초 설문 조사를 해 보면, 모두 수업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그동안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고전문학 작품의 제목은?’이라는 질문에 <동물농장>, <로미오와 줄리엣>, <봄봄>, <운수 좋은 날>과 같은 답을 적어내는 학생들이 3~4명 정도는 됩니다. 이미 ‘낮익은 듯 낯설고 뻔한 듯 어려운 그 무엇’이자 무려 무관심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고전문학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그것을 자기 삶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저는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산책’길을 닦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고전문학산책’은 우수 강의 수기의 대상이 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채 영글지 못한 것을 내보이자니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아마도 제게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급격한 강의 환경 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형태로 전환된 2020년도 한 해 동안, 이 과목은 1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전혀 낯선 영역에 대한 배움과 도전이 반복되는 과정이었기에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같은 교과목을 연이어 수업하다 보니, 아주 가끔은 그 안에서 돌아 돌아 조금 더 나은 길을 찾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 소소한 경험들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 기존 수업의 재설계]

‘한국고전문학산책’의 커리큘럼은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시험 전에 예상문제를 제공하며, 문제 역시 정해진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유형보다 그렇지 않은 유형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커리큘럼에 같은 작품이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되다 보면, 시험 또는 과제에 대한 일종의 ‘족보’가 생겨날 수 있어 매년 작품이나 텍스트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2020년 1학기 ‘한국고전문학산책’ 수업을 앞두고 언제나처럼 일부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바꾸고 과제도 정비했습니다. 직전 학기 ‘신화

의 세계’ 수업 때 조별 활동과 전문가 특강에 대한 호응이 높은 편이었기에 그 방식을 이 과목에도 유사하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중심학습(PBL) 교수학습법을 과목 성격에 맞게 변용한 고전문학 기반 콘텐츠 기획 활동, 고전문학 기반 콘텐츠 평가 활동을 조별 수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커리큘럼에 포함된 창작 판소리 작품의 작·연출가 및 창자에게 전문가 특강 수업도 미리 부탁해두었습니다. ‘화전동 인근 마을 이야기 조사단’, ‘고전문학 낭송회/낭독회’를 새로 기획해 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기 배치했고,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통놀이로서 일종의 보드게임 형식을 띤 ‘승경도 놀이’를 야심 차게 구비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교롭게도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이어야 실행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학기 수업만 하더라도 이후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최대한 수업에 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름학기, 겨울학기 때도 1학기 수업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방법만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강의 운영을 위한 방법적 개선 또는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한 과제 부담 완화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우선 조별 활동은 방식만 비대면으로 바꾸어 그대로 진행하되, 조별 활동의 진행 방법을 최대한 친절하게 제시해주었습니다. 전문가 특강은 전면 취소하는 대신 해당 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연 실황 영상을 미리 제공받아 수업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화전동 인근 마을 이야기 조사단’ 활동은 설화와 민요 구연자의 음성 파일이 업로드된 DB에서 학생들이 직접 설화와 민요를 찾아 듣고 수행하는 과제로 대체했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나마 화전동 인근 지역을 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사진 자료를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고전문학 낭송회/낭독회’ 역시 취소했지만, 오디오 드라마 예시 자료를 소개한 뒤 개인 또는 조별로 고전문학 작품을 각색·낭독한 음성 파일을 제출하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1학기과 여름학기에는 학생들이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것을 개인 과제로 부여했고, 겨울학기에는 조별 과제로 전환했습니다.

[LMS와 MS Teams를 적극 활용한 수업 운영]

2020년 ‘한국고전문학산책’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LMS(학습관리시스템)와 Microsoft Teams를 가장 주요하게 활용했습니다.

우선 개강 전 LMS <공지사항>에 향후 온라인 수업 진행에 관한 공지글을 게시하고, 주차별 수업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맞기 전부터 LMS를 활발히 사용해 오고 있었기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면서 여타의 유용한 다른 기능을 추가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특강이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전까지는 강의안 및 수업 보조자료 업로드, 수업 과제 제출, 시험 예상문제 공지, 시험 성적 및 최종 성적 발표, 수업.시험 관련 질의응답(Q&A), ‘수강생 알림’ 기능을 활용한 메시지/이메일/SMS 소통 공간 정도로 LMS를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㉞부분을 구체화하고, ㉟와 ㊱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수업한 ‘한국고전문학산책’ LMS 화면입니다. (왼쪽은 2020-1, 오른쪽은 2020-겨울)

※ 1주차 [3월16일 - 3월22일]

1주차 온라인수업 안내

㉞ 주차별 수업 내용

※공지사항 1번 글을 먼저 읽고 오세요.

- 1) 업로드된 강의록 번호 순서대로 수강합니다.
- 2) 제출할 과제: 과제1(설문), 과제2(퀴즈)
- 3) 과제 제출 기한은 3.21(토) 자정까지이며, 과제 제출 여부에 따라 1주차 출석을 체크합니다.
- 4)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선생님 메일로 연락주세요!

㉟ 수업 운영 공지

수강신청 기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영상 링크에 접속하면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메일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따로 문의 바랍니다!



- 1주차(1): 강의 소개
- 1주차(2): 교양 명예 전하는 옛 이야기1
- 1주차(3): 퀴즈 관련(한국고전문학대계 사이트 활용법)
- 한국고전문학대계 사이트 링크
- [과제1] 설문지
- [과제2] 1주차(2) 온라인 수업에 대한 퀴즈

㊱ 수업 및 관련 자료 링크

㊲ 수업 과제

- 한국고전문학산책 1주차 강의안 강의 소개 425.2KB PDF 문서
- 한국고전문학산책 1주차 강의안 교양 명예 전하는 옛 이야기 1.2MB PDF 문서

㊳ 강의안



㉔에는 강의계획서의 주차별 강의계획을 그대로 적었는데, 겨울학기 부터는 왼쪽 캡처 화면과 같이 매 수업 때 주요하게 다룰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LMS 화면에 넣어두었습니다. 공지와 과제, 영상 목록만 줄줄이 두는 것보다 시각적인 흥미를 돋우는 한편, 관련 수업 내용을 예상하거나 환기하도록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㉕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에 학생들의 문의가 있는 경우 추가 공지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때 추가 공지는 글자 모양을 달리하여 기존 공지와 구분하고, 학생들에게도 별도로 추가 공지에 관해 알렸습니다. 공지를 수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㉖는 학교 지침을 따랐습니다. 1학기에는 수업 녹화 동영상을 업로드한 다음 LMS에 링크를 올렸고, 여름학기에는 LMS에 직접 수업 녹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전의 방식과 병행했으며, 겨울학기에는 수업 녹화 동영상 전편을 LMS에 직접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강의 주제에 따라서만 구분했지만, 이후에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업 집중 시간을 고려해 영상을 시간 단위별로 편집해 올렸습니다.

㉗의 수업 과제는 LMS에서 제공되는 ‘과제’, ‘설문조사’, ‘퀴즈’ 기능을 고루 활용하면서 매주 부여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가장 자주 내주었는데, 정해진 답안이 있는 문항은 퀴즈 편집 시 답안을 미리 입력해 두어 학생 스스로 해당 주차 종료 후 답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 기능은 학생 개인이나 수업 조별로 문서, 그림, 음성 파일 등을 업로드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사용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내주시는 경우 LMS 화면 왼편 <기타 관리>의 <팀 설정>에서 팀을 미리 설정해두시면 편리합니다.

㉘의 강의안은 ㉖에 업로드된 수업 녹화 동영상을 기준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다만 수업 내용이 ‘족보’화 되거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강생의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온라인 수업 운영 시 특히 유용하게 활용했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습진도현황>의 활성화입니다. 겨울학기 때 학교 안내에 따라, LMS 화면 왼편의 <기타 관리> 메뉴에서 <강좌 설정>으로, 다시 <이수/진도 설정>으로 들어가 ‘진도관리 사용여부’를 ‘예’로 체크해 <성

적/출석관리>의 <학습진도현황>을 활성화했습니다.

진도 현황

검색 이름 검색

진도를 가져오기 Excel 다운로드

번호	이름	학번	학과(전공)	1주차 (12월31일)	2주차 (12월31일)	3주차 (12월31일)	4주차 (12월31일)	5주차 (12월31일)	6주차 (12월31일)	7주차 (12월31일)
1			학과	100%	100%	0%	0%	0%	100%	100%
2			학과	100%	100%	0%	0%	0%	100%	100%
3			학과	100%	100%	0%	0%	0%	100%	100%
4			학과	100%	100%	76.4%	5.95%	0%	100%	100%
5			학과	100%	100%	100%	100%	0%	100%	100%
6			학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			학과	100%	100%	94.74%	0%	100%	100%	100%
8			학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			학과	100%	99.97%	100%	100%	0%	100%	100%
10			학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			학과	100%	100%	36.24%	0%	100%	100%	100%
12			학과	100%	100%	32.45%	62.45%	100%	100%	100%

덕분에 수업 사전 녹화 동영상 또는 실시간 수업 녹화 동영상에 관한 수강생들의 학습 진도 현황을 위와 같이 한눈에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시간 수업 녹화 동영상의 경우, 해당 수업 시간에 출석한 학생들은 이 영상을 다시 100%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기에 타 과목을 강의할 때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LMS <기타 관리> 메뉴 중 <이수/진도 설정>의 ‘온라인출석부 사용여부’를 ‘예’로 체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출석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출석부를 보고 놀란 학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실시간 수업에 출석한 뒤에 녹화 영상을 굳이 다시 이수하지 않은 대다수 학생이 해당 주차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온라인출석부 사용 여부’를 ‘아니오’로 정정했습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학습진도현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설문조사’ 기능의 활용입니다. 2020년도 ‘한국고전문학산책’ 시간에는 평균적으로 약 4~5회가량의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장에 서술할 내용이지만, 저는 온라인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학기 내내 활용했습니다. 설문 조사도 1주차 때만 LMS에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간단히, 수시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2020년 이전 수업 때도 첫 시간에 설문 조사를 시행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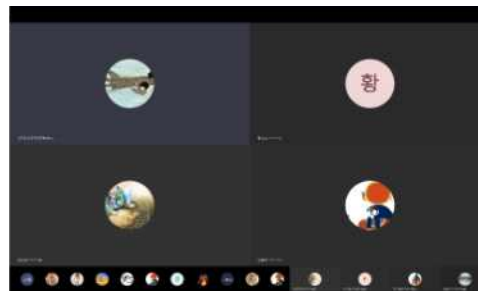
그 결과를 한 학기 수업에 반영해 왔습니다. 미리 복사해 간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학생들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보니 이 편이 더욱 나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설문 조사는 계속 온라인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생각할 여유를 얻은 만큼 어느 때보다도 자기 생각을 아주 소상하게 적어냈고, 저는 응답 내용을 문항별로 한눈에 보면서 수업에 반영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면 전환 이후, 개인적으로 가장 공들여 설계한 것이 조별 활동입니다.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아예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만 잘 찾아낸다면 조별 활동이야말로 오히려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비대면 수업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조편성 및 조별 활동에 관한 자기 의견을 꼼꼼하게 적어내는 것은 물론,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 겪었던 경험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설문 조사 결과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탄탄하게 기존의 조별 활동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고전문학산책’ 수업에서는 실시간 수업 및 과제 피드백 시 Microsoft Teams를 활용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수업 때 Microsoft Teams를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켜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학생에 따라 장비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실시간 수업 중의 사진이나 영상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메라

는 자율적으로 켜고 끄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마이크는 되도록 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고전문학산책’ 수업 사례는 아니지만, ‘신화의 세계’ 실시간 수업 시간에는 매주 수업 시간에 다룰 신화 속 인물 그림을 미리 Microsoft Teams의 개인 프로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왼쪽은 ‘한국고전문학산책’ 2020-겨울학기 수업, 오른쪽은 ‘신화의 세계’ 2020-2 수업)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방법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Microsoft Teams도 Zoom과 마찬가지로 소그룹 회의가 가능해 조별 활동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채널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미리 편성해 둔 조에 학생들이 모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1학기과 여름학기까지는 제가 ‘채널 만들기’ 기능을 활용해 미리 조를 편성해두었고, 이후에는 조원 명단을 LM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다음 자율적으로 조별 활동 방식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조는 수업을 진행했던 Microsoft Teams에서 화상 채팅이나 음성 채팅으로 조별 활동을 이어나갔고, 어떤 조는 카카오톡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조도 있었습니다. 조별 활동도 수업 중 진행을 원칙으로 하였기에, 저는 조별 활동의 진도 상황을 개별적으로 체크했고, 일정 시간 뒤 다시 Microsoft Teams로 모이게 해 중간 결과물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시간 수업 때는 Microsoft Teams로 내용을 설명한 직후 복습 퀴즈를 실시하거나, 조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 녹화 영상 촬영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 캡처 화면처럼 판서를 병행했고, 퀴즈는 오른쪽 캡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내 교수법 특강 때 소개받은 ‘멘티미터’(www.mentimeter.com)를 활용했습니다. 퀴즈를 시작할 때에는 QR코드와 퀴즈 링크를 Microsoft

Teams 채팅창에 올려 학생 각자가 접근성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별 발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표 자료를 LMS에 업로드하도록 한 다음 제가 다운로드해 발표 순서대로 편집하고, 다시 LMS에 pdf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발표 시에는 학생이 직접 ‘화면 공유’를 통해 진행하거나, 제가 ‘화면 공유’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발표에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발표와 발표 사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후자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과제 피드백의 경우, 1학기에는 14주차, 계절학기에는 14일차부터 진행했습니다. 1학기과 여름학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때라 Microsoft Teams를 활용한 온라인 피드백, 연구실 또는 야외 벤치 등지에서 만나 진행하는 대면 피드백을 병행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희망자에 한정해 시간표를 만든 다음, 온라인 피드백만을 진행했습니다.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비대면 소통 및 상호작용의 활성화]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평소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수업이 어떤 이론이나 학문의 경계를 넘어 교수자의 삶을, 학습자의 삶을, 그 공동체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소통과 상호 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은 것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는 창구였습니다.

물론 수업에 관한 안내는 LMS에 모두 공지했습니다. LMS가 조금 더 공식적인 성격을 띠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겸비하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시작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LMS의 <공지사항>에 그 링크와 QR코드를 올리고, SMS 메시지로 링크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1학기 때 처음으로 직접 사용해 보니 학생들이 ‘오픈프로필’을 만들어 입장하지 않으면 아예 채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에게 일일이 다시 연락해 현재 프로필을 ‘오픈프로필’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따로 연락해 실명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있었기에, 계절학기 때는 ‘오픈프로필’에 대한 안내를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LMS 게시물 업로드 알림 공지, 조편성 공지, 수업 진행에 관한 수시 질의응답 및 전체 공유, 수업 진행에 관한 간단한 설문 조사 등이 학기 내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이 채팅방에 직접 하기보다, 개별적으로 ‘오픈프로필’을 통해 질문해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는 우선 답을 해준 다음, 질문한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개인 정보를 가린 채팅 내용을 ‘카카

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조 편성 내용을 LM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지하면, 해당 조의 조장은 위와 같이 조별 과제 수행을 위한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만들어 그 링크를 우리 수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원들은 그 링크를 통해 '오픈채팅방'에 바로 모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비대면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고전문학산책'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자-학습자 사이의 소통과 상호작용도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운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수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 1학기, 그때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과목 수에 따라 총 6개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저는, 다소 정신없는 한 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비대면 수업의 방식 자체가 점차 안정화 되기도 했거니와, 이전 학기에 질문이 나왔던 부분들을 더 다듬고 개선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기술도 점차 늘었습니다. 또 자주 질의응답을 해오던 학생 중 일부는 정말 고맙게도 '한국고전문학산책' 온라인 수업을 모니터링해 주었습니다. 영상이나 음원에 관한 문제, LMS 과제나 수업 공지에 관한 문제, 과제 양식이나 피드백에 관한 문제 등을 발견하면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 남겨 주었습니다. 캡처 사진까지 첨부해 꼼꼼히 남겨준 덕분에, 저는 한결 수월하게 온라인 수업 중의 여러 문제를 즉각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움과 도전, 반성과 성찰의 길]

2020년 첫 학기를 보내고, 기존의 교수학습법과는 또 다른, 지금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배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의 '2020년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온라인 연수'도 신청해서 들어보고, 온라인 수업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MS Teams”를 활용한 실시간 강의 및 팀 기반 수업방법>, <효과적인 수업참여를 위한 “소셜러닝툴 사용법”>, <“비대면 교육의 효과적 수업 방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플립드 러닝의 정의, 구성, 운영 방법”)> 등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수법 특강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패드렛(<https://padlet.com>)도 교내 교수법 특강을 통해 그 사용법을 배우게 된 수업 도구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학기에는 조별로 진행한 고전문학 기반 콘텐츠 평가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우수 과제를 선정해 가산점을 준 다음 LMS에 발표 영상을 녹화해 올리도록 했고, 여름학기에는 모든 조별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우수작을 발표한 다음 LMS에 <우수 과제 공유 게시판>을 만들어 그것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겨울학기에는 학습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의 측면을 강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적응력과 열정, 에너지를 보며 수업에 거는 기대가 커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겨울학기 13일차 수업 때는, 우수 조만이 아니라 모든 조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패드렛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형식적인 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정 질의 조는 미리 정해주었습니다. 설문 조사 때만큼이나 학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질의응답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한국고전문학산책’은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부터는 이 교과목을 Flipped Learning(플립러닝: 거꾸로 수업) 방식에 따라 재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 길을 닦아보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II. 2020 학습공모전 우수작

학부(과)	경영학부	학번	2020126030	성명	김현중
지원 분야	☒ 내가 수강한 우수 온라인 강좌 ☐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나만의 학습 노하우				
제목	내 삶의 첫 교양, 공자와 함께				

○ 에세이 작성 동기 / 강의 소개 및 특징

젊은 세대를 위한 쉬운 논어 읽기. 이번 학습 공모전에서 내가 수강한 우수 온라인 강좌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강의가 이 강의였다. 처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참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들었던 강의들 중에서 전공이 아님에도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처음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할 때에는 다소 스스로가 원하던 수강신청은 아니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라 시간을 보내던 사이에 기존에 수강을 희망하던 강의들이 마감되어 신청한 강의였다. 논어와 공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고등학교의 사회 탐구 과정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다. 단순히 공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외우듯 공부했던 나에게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들으며 대학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공부의 흥미를 느껴본 것 같다. 2학기인 지금도 같은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다른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나름 중독된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에세이는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예찬과 왜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온라인이라서 훌륭한 강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소요소들에서 다른 강의보다 온라인임에도 준

수한 강의였고, 그 강의 내용이 마음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 수업 관련 사항 내용

우선 이 강의는 공자의 담화를 담은 논어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체를 다루기는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부분 발췌를 통해 구절들을 읽고 그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 부분 발췌이나 오히려 논어를 안 읽어봤던 나는 흥미로운 구절들을 골라주셔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논어는 딱딱하고 구식의 사상이다’라는 생각은 공자라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며 무너졌다. 공자가 그 시대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보면서 스스로 현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것 같다.

공자를 지금 젊은 세대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보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느낀 것은 사람들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 그러한 양상이 커진 것 같다.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더 부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공자의 수기치인이라는 자기 수양론을 듣고 나면 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 나의 수양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변화일 뿐 주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정말 떨어지는가? 최근 나는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 모두를 경험해봤다. 그러나 모두 각 구성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오히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이점을 얻었다. 그러나 온라인 학습은 현재 대부분이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참여자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고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이를 온라인 학습의 문제로 만드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나의 삶이 힘든 이유가 온라인 학습이 아닌 나의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유교를 공부하며 나 역시 현재의 아쉬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이 강의는 실시간 소통 시간이 있다. 그 주의 강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학생들과 이에 대한 담화를 통해 보다 그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로 이끌어 주신다. 가끔 강의에서 있었던 내용과 현재 사회를 연관

지어 설명해 주실 때는 공자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리 먼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실시간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온라인 임에도 오프라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면 실시간 소통의 경우 출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다소 적었던 것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시간 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궁금증과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인상적인 강의 사례

나는 최근 2주 동안 드디어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경험해봤다. 물론 이 역시 온라인과 병행하는 오프라인 강의였지만 드디어 강의실에서도 강의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오프라인 강의들보다 이 강의를 온라인이었음에도 더 소통이 잘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한 실시간 소통에서 내가 이러한 생각이 든 사건이 있었다.

실시간 소통이 처음 생기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습법에 대한 건의 사항을 받아주셨을 때, 현재 강의와 실제 사회를 연관지어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다. 논어 강의는 자의만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나, 논어 강의를 듣는 목적은 현재 사회의 사안들을 공자의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의견은 바로 다음 시간부터 적용되었다. 크게 기대를 갖고 교수님께 건의했던 것이 아닌 나는 적지 않게 놀란 일이었다.

이후의 강의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와 근현대사를 통해 논어를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진행해주셨다. 현 시대에도 시대의 혼란이 있고 사람이 있기에 공자 당시의 시대와 현 시대는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격언들이 많은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교수님께서 무모한 자와는 일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포호빙하’의 구절을 설명해주시면서, 학생들에게도 너무 용감한 사람과는 일을 함께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다. 당시 내가 다소 무모한 일들을 하며 스스로가 용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자신의 무모함을 돌아보고 반성했다.

기말고사를 보고난 후, 남아서 교수님께 가장 좋아하시는 논어의 구절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다. 이때 교수님은 다른 많은 구절들 중에서 공자의 생애에 대한 구절을 꼽으셨다. 지우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소욕불유구로 나타나는 공자의 생애를 택하신 것에 처음에는 왜 그것을 고르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유명한 하나 나에게 크게 울림을 주지는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질문하자, 교수님께서 결국 이런 공자의 생애를 따라잡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계시며, 아마 끝까지

인생의 목표로 남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내가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기말고사까지 끝났으나, 보다 공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어졌다. 교수님께서 인생의 목표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과연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아직 분명한 목표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님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목표를 찾는 것이 계획이다. 현재 나는 논어를 직접 사서 읽고 있다. 한자 하나하나를 느리게 읽어가며,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교수님께서 왜 공자의 생애를 가장 중시하셨는지 알 것 같다.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이지만 스스로의 수양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기에 정직하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 추천 이유 및 소감 등

앞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시간을 제공해주시기 때문이다. 물론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며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세상을 불평하지 않고, 나를 수양하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의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적에 부합하게 썼다는 자신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쉬운 논어라는 강의를 꼭 이러한 글로써 나의 감상을 남기고 싶었다. 철학의 입지는 줄어들지만 철학의 가치는 오르고 있는 시대이다.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더 뜻 깊은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학습센터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76

전화 : 02-300-0494 이메일 : ctl@kau.ac.kr

홈 페이지 : <http://ctl.kau.ac.kr>